

이슈 3

건설기업의 ESG 대응 동향 및 중점 추진 방향



대형건설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ESG 대응 활발

- ◎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 관련 이슈의 급부상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대건설’, ‘DL 이앤씨’,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기업들은 최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전략적 진출을 한 이래로 사업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전(SMR)³⁾을 차세대 원전사업의 핵심으로 예상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DL 이앤씨’는 탄소중립의 핵심인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등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임.
 - 환경 및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 중인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폐기물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음.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운반·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 ‘웨이블’을 구축하였고, 그린수소(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나 전력, 희소금속 등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 가치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수소 인프라,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순환(소각로, 수처리)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 ◎ 또한, 건설기업 다수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의 ESG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평가와 거리가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ESG 경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국내의 KCGS로부터 2019년 이후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고 있으며, 해외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평가에서도 BBB등급을 획득함. 또한, 4년 연속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리더십그룹’에 연속으로 편입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음.
 - ‘GS건설’은 친환경사업에 전략적 진출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ESG 경영을 추진 중이며,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동참,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 ESG 경영의 내재화에 노력 중임.
 - 또한, 건설업계 최초로 ‘ESG 안전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찍부터 ESG 경영을 추진해 온 ‘롯데건설’은 ESG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장기 ESG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환경 분석을 비롯해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3) 소형모듈원전은 기존의 대형원전(1,000~1만 5,000MW급)의 3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의 출력을 가진 소형원전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ESG 경영 지원과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으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 섬유로 만든 근무복 제작 등으로 자원순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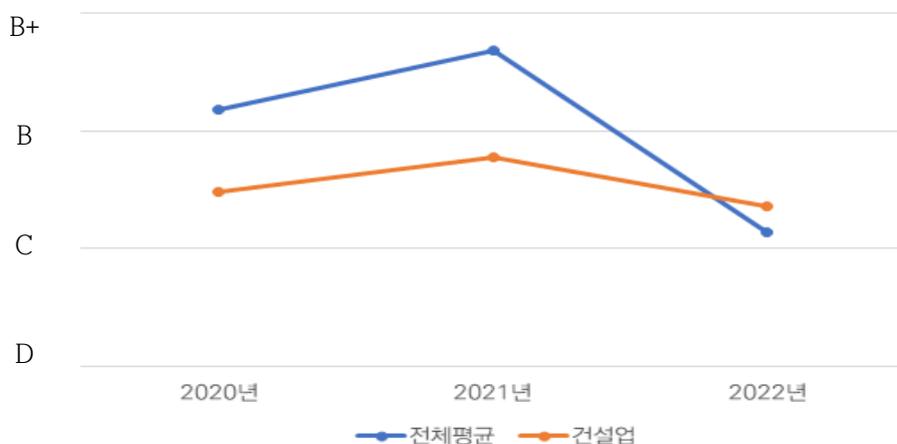
- ◎ 대형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건설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는 등 건설업계의 지속가능경영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임.
 - 대형 상장 건설사의 경우 보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ESG 경영이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ESG 경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대형건설기업을 넘어 이제는 중견건설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 DL 이앤씨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중견건설기업에선 아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와 ESG 경영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지만, 중견건설기업인 ‘반도건설’과 ‘아이에스동서’ 등이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임.



건설기업, “ESG 경영의 적극적 추진에 애로사항 많아”

- ◎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기업들이 ESG 확산 초기부터 ESG 경영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과 경영 내실화 및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임.
- ◎ 실제로 2022년 말 발표된 ESG 포털에 공개된 23개 상장 건설기업의 ESG 등급을 보면, 2022년 평가 등급은 전체등급 평균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서비스업, 금융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특히, 환경 부문이 타(他) 부문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ESG 경영의 내실화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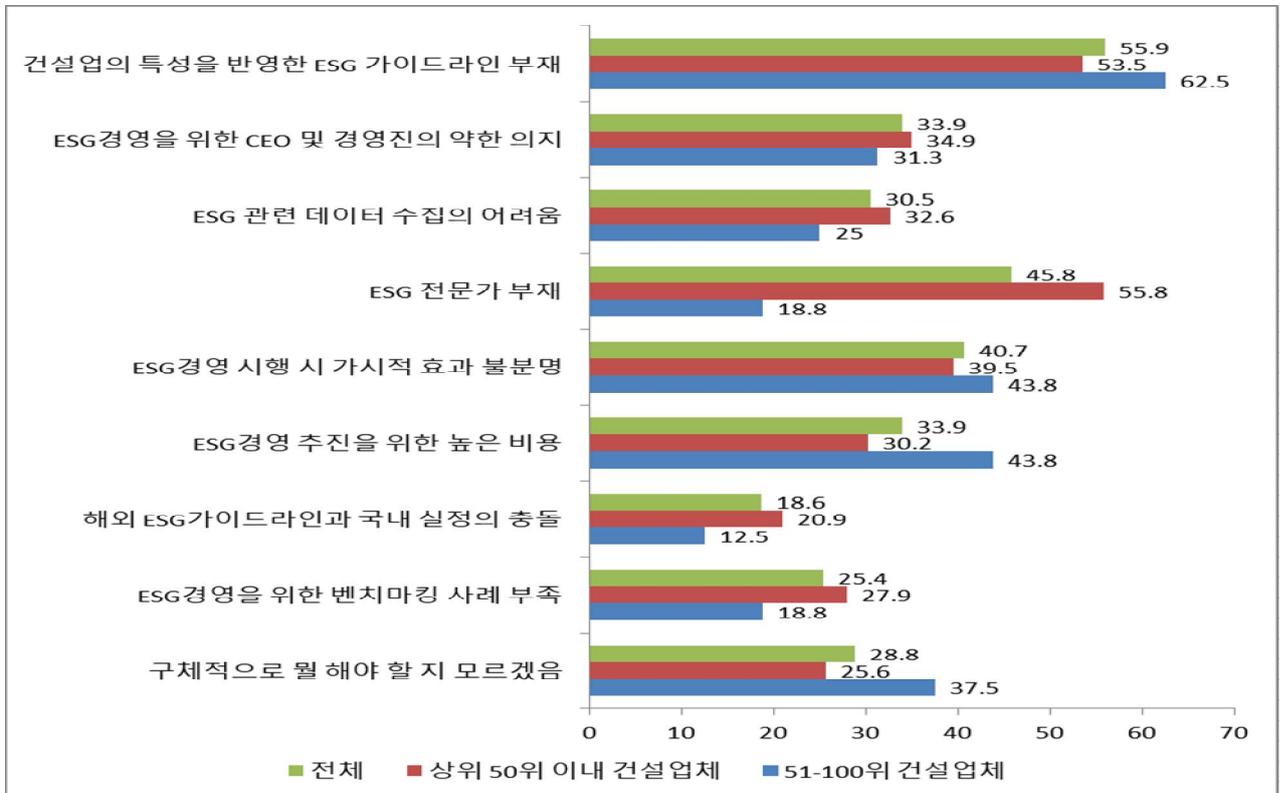
〈그림 1〉 ESG 등급 전산업 평균 대비 건설업 비교



자료 : 각 연도 KCGS ESG 평가 등급.

- 특히, 2022년 건설기업 ESG 등급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위 이내 기업들의 평균 등급은 A~B+ 구간(3.67, 등급 구간을 5점 척도로 환산 시), 11~50위 기업들은 B+~B 구간(3.18), 50위권 밖의 기업들은 C~D 구간(2.36)으로 건설기업 규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중견, 중소건설기업의 ESG 확산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수준은 대형 건설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2022년, 100위 이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고 답하였으나 건설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 실제로 ESG 경영 추진 시 건설업체가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51~100위 업체의 37.5%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함(그림 2) 참조).
 - 또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부재'가 ESG 경영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 건설기업에 적용가능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2〉 ESG 경영 추진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최은정(2022),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와 함께 전문가의 부재, ESG 경영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ESG 경영의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ESG 경영에 대한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51~100위 업체들의 50%가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50위 이내 업체의 14.0% 응답률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ESG 경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산업 차원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민관 협력 필요

- ◎ 최근 국내외 ESG 확산 추세 및 향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건설산업 차원의 ESG 확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활동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원(2022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를 토대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 결과, 상대적으로 건설업에서 취약하게 지적된 분야는 <표 1>과 같음.

<표 1> 갭(GA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취약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하지만 취약한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취약한 ESG 지표	
환경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사회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공시	사회	자발적 이직률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교육훈련비
	정규직 비율		복리후생비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인권 정책 수립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경영
	전략적 사회공헌		협력사 ESG 지원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고용 평등 및 다양성		
	노동 관행		
지배구조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지배구조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감사기구 전문성		이사회 성별 다양성
	중대사고 위험관리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주 : 취약한 ESG 지표는 건설업체 전체 취약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자료 : 최은정(2022),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산업 차원에서 ESG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영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건설산업 ESG 경영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산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ESG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 또한, 정부와 건설기업이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업은 ESG의 영역 중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및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ESG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또한, 건설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고려해야 함.
- ◎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건설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건설산업 ESG 경영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ESG 경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마련을 계획 중임.⁴⁾
 - 또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ESG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즉, ESG의 반영이 국제적 흐름이나, 공공조달은 환경·사회 요소의 일부만 고려하여 체계적 반영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조달기업인 특성을 감안하여 ESG 기반조성, 시범 적용(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등 검토)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⁵⁾
 -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 종합해 보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별 건설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ESG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작업, ESG 분야별 모범 사례(best practice) 발굴, 교육 지원 등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함.

최은정 연구위원(kciel21@cerik.re.kr)

4) 국토교통부(2022.11.),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 참조.

5) 관계부처합동(2022.12.), “비상경제장관회의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 참조.